

조선

미국 원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3. 4. 29

조선/기계
Analyst 박무현
02.3779-8967
bossniceshot@etrade.co.kr

2020년, 미국 세계 1위 산유국 예상

미국의 Light Tight Oil 생산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IEA 전망자료에 의하면 2020년이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석유 생산국으로 올라 설 것으로 것이며 에너지 순 수출국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ight Tight Oil의 생산원가는 배럴당 40~50달러 수준이며 미국은 최근 경기호조세로 원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투자여력은 충분하다. 이에 따라 EIA에서는 최근 미국의 원유 생산량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유가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다. EIA는 2020년이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1,100만 배럴/일 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하루에 전세계가 소비하는 석유소비량은 지난달 기준으로 8,905만배럴/일이며 금액으로는 80억달러, 8조원 수준이다. (\$90/Barrel, 원/달러 1,000원 가정)

늘어나는 미국 원유 생산량, 줄어드는 Drillship 발주량

지난 2년간 Drillship 발주량은 70척이었으며 2011년 4월까지 23척의 Drillship이 발주됐다. 지난해는 4월까지 7척의 Drillship이 발주됐다. 올해는 삼성중공업의 옵션 수주분 1척에 불과하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Drillship 발주시장이 조용하다.

아마도 Drillship 선주들은 미국의 원유생산량 증가를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정유 시설이 부족한 이유도 있겠지만, 원유 생산량 증가폭은 수입량 감소폭을 상회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Drillship 발주는 몇 척 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원유생산량 증가폭이 계속 커진다면 Drillship 발주수요는 둔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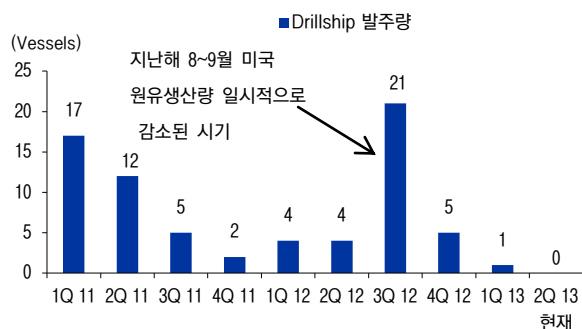
[표1] 미국 원유 생산량과 수입량 비교

(Thousand Barrels per Day)

Supply	Current	Week ago		Year ago		2 years ago	Four-Week Average			Cumulative Daily Average		
	4/19/13	4/12/13	Difference	4/20/12	Difference	4/22/11	4/19/13	4/20/12	%Change	4/19/13	4/20/13	%Change
Domestic	7,326	7,208	118	6,113	1,213	5,610	7,217	6,061	19.1	7,111	5,860	21.4
Net Imports	7,517	7,386	131	8,727	-1,210	9,266	7,616	8,907	-14.5	7,675	8,222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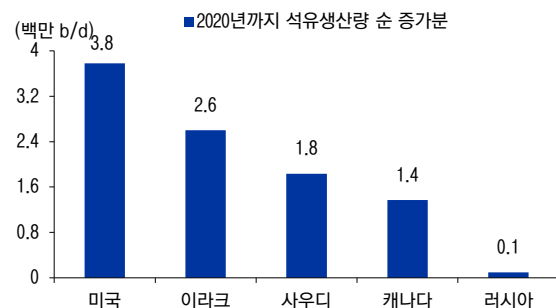
자료: EIA,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 분기별 Drillship 발주량



자료: 석유공사,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국가별 석유생산 순 증가량 전망



자료: IEA,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무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적용기준(향후12개월)
Sector(업종)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Report(기업)	Strong Buy (강력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50% 이상 기대
	Buy (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15%~50% 기대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절대수익률 기준 -15%~15% 기대
	Sell(매도)	절대수익률 기준 -15% 이하 기대
	N.R.(Not Rated)	등급보류